

New Leadership, Peace and Prosperity in Korea-Japan Relations

“새로운 리더십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관계”

“新しいリーダーシップと平和と繁栄のための日韓関係”

日字: 2013年 8月 30日 (金)

場所: 일본 도쿄 일본재단 2층 대회의실 (日本財団ビル2階 会議室)
(〒107-8404 東京都港区赤坂1丁目2番2号日本財団ビル)

主催: 아시아연구기금(ARF, The Asia Research Fund, アジア研究基金)

後援: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 日本財團)

Program (tentative)

登録: 9:00 ~ 9:20

開會式: 9:20 ~ 10:00

司會: 金基正 (ARF 프로그램 위원장, ARF 프로그램委員長)

開會辭: 金學旆 (ARF 理事長)

祝辭: 尾形武壽 (오가타 타케주, 日本財團 理事長)

Keynote Speech: 權哲賢 (前 駐日韓國大使)

Session(セッション) 1: 10:00 ~ 12:00

主題: “民主主義와 平和” “民主主義と平和”

- 1) 한일 양국은 모두 민주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일 양국 민주주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대의성이나 책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 2)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선출하는 정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국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대외관계 (한일관계)를 정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위험성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한일관계의 평화적 미래,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한일관계가 견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日韓両国はともに民主主義体制をとっています。現在の日韓両国の民主主義体制は適切に機能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代議制や責任性の問題はないでしょうか？
- 2) 日韓両国の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を選出する政治過程になにか問題はあるでしょうか？
- 3) 国内の政治的基盤を維持のために対外関係（韓日関係）が悪用される危険性がある、との指摘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
- 4) 日韓関係の平和的未来、さらには北東アジアの平和を日韓関係が牽引するために政治家が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役割はどのようなものだと思いますか？

司會: 文正仁 (ARF 理事, 延世大 教授)

參席者: 李洛淵 (民主統合黨 國會議員),

TBA (日本 政治人 1),

姜元澤 (서울대 教授, ソウル大学),

細谷雄一 (호소야 유이치, 慶應義塾大学)

午餐: 12:00 ~ 13:20

Luncheon speech: TBA

Session(セッション) 2: 13:30 ~ 15:30

主題: “競争과 繁榮” “競争と繁榮”

- 1) 国交정상화 이후 한일경제 협력관계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 2)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까?
- 3)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에, 더 나아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4) 한일 FTA, 그리고 한중일 FTA 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1) 国交正常化以来、日韓の經濟協力關係の方向性についてどのような評価を下すことができますか？

2) 世界的な經濟危機の中で、日韓の經濟協力は、どのような突破口を模索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3) アベノミクスが日本經濟に、さらに日韓關係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かりにアベノミクスによる問題点があるとすればその解決策としてどの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か？

4) 日韓FTA、日中韓FTAの展望と課題についてのご意見をお聞かせください。

司會: 李斗遠 (ARF Program 委員, 延世大 教授)

參席者: 李佑光 (韓日技術協力財團),

福田 慎一 (후쿠다 신이치, 日本 東京大 經濟學 教授)

최병일(韓國經濟研究院院長),

TBA (日本側 企業人 1)

coffee break: 15:30 ~ 16:00

Session(セッション) 3: 16:00 ~ 18:00

主題: “民族主義와 地域協力: 미디어의 役割을 中心으로”

(“民族主義と地域協力: メディアの役割を中心に”)

1) 한일 양국에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 (nationalism)가 작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양국 민족주의 특징과 차이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양국 배타적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양국의 미디어가 가지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양국에서 미디어들에 종사하는 언론인들간에 진행되는 교류와 대화는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한일관계 협력과 증진을 위해 양국 미디어에 초국경적 (transnational)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십니까?

4) 한일 양국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규범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적 대화 (cultural dialogues)를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양국관계에서 문화적 대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은 무엇입니까?

1) 日韓兩國には、もちろんそれが支配的ではないものの、それぞれ排他的ナショナリズムが存在し、そうした活動があるのも事実です。両国のナショナリズムの特徴と相違点をどのように評価されますか？

2) 両国の排他的ナショナリズムが増幅するメカニズムに、両国のメディアに一定程度の責任がある、という指摘に対してどのように評価ですか？

3) 両国のメディア関係者の交流と対話の原状はどのようなレベルにありますか？また、両国のメディア関係者には、日韓関係の協力と増進のための国境を越えたコンセンサスはあると思いますか？

4) 日韓兩國が、日韓関係の未来志向的規範を共有するための方法として、市民社会レベルでの様々な文化的対話も一つの選択肢として考えられるでしょうが、日韓の文化的対話は、どの程度のレベルで進んでいると評価できますか？また、文化的対話を促進し、日韓関係を

未来志向へと導いていくための課題と展望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

司會: 若宮啓文 (元朝日新聞)

參席者: 鄭求宗 (韓日文化交流委員會, 前東亞닷컴 社長),

青木理 (아오키 오무라, 共同通信)

金相準 (ARF Program 委員, 延世大 教授),

木村幹 (기무라 칸, 日本 神戸大學大學院 教授)

晚餐: 18:30~

日本財団 主催